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 일 환



한국 언론사 어떤 곳에서도 시도되지 않았던 신문-방송 통합 체제가 어느덧 2개월이 되어갑니다.

지난 12월 1일 광주일보가 방송시대를 열고 내달려온 시간은 모든 것이 새롭게 쓰이는 역사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은 새로운 만큼의 치열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신문만을 생각하던 기자들의 철학이 바뀌었고 제작시스템도 상전벽해 했습니다. 기획물은 물론 사건·사고의 현장에서도 공감각적인 취재가 이루어졌습니다. 방송의 속보성과 신문의 심층성을 함께 담아내기 위해 뛰고 또 뛰었습니다.

신문-방송 경계 허물어저

통합뉴스룸으로 바뀐 편집국의 일상도 새로운데 대한 도전의식으로 충만했습니다. 기자를 저마다 닦아 신문·방송의 경계를 허물어내는 아이디어를 내놓았고 그 아이디어는 심심함을 고스란히 담은 채 요리되어갔습니다. 방송이 속보성으로 우선하면 신문이 심층성으로 따라갔고 신문이 제기하는 이슈에 대한 명쾌한 해법은 방송이 핵심을 우려내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지역의 따뜻한 기사, 광주 문화수도만

의 감성이 묻어나는 기사, 전남의 수려한 풍광과 문화, 관광자원을 전국에 소개하는 기사들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타지역의 시청자들에게, 지역민들에게 광주 전남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알리고자한 광주일보만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또 사건·사고 리포트에서는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쓴살처럼 내달려온 지난 2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양성이라는 말로 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2월 초 '국내 최초 지하철 재동력'을 광주 지하철 역사 전기로 재촬영 리포트가 채널A 프라임 타임 뉴스에 나온 것을 시작으로 광주일보 채널A 방송이 전국 전파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보도된 '광주 일부 법인이런이집 불법매매'는 신문과 방송이 플라보레이션(협업)한 첫 기사입니다. 취재기자가 방송과 신문을 동시에 취재해 지면과 리포트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관계자

와 단독 인터뷰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월 중순 채널A 뉴스네트 워크에 보도된 '공립학교 교사 채용 바뀌기'도 신문기자만의 날카로움으로 인사 관계자를 인터뷰해내 다른 방송사에서는 보도되지않은 바뀌기기의 진상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경찰폭행으로 숨진 형님 29년째 장례도 못 치러' 기사는 한국 지방신문협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취재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피해자의 동생을 추천에 있는 강원일보와 공동으로 인터뷰를 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터진 '광주 중학생 자살사건'은 본사와 채널A 사건의 공조

지로 전국에 알려지는데 일조했다고 자부합니다.

연초에는 19대 총선 특별기획 '지역민심 변화를 읽하다'를 통해 4월 총선의 향배를 가늠해보기도 했습니다.

지역言論史의 숙원

방송을 시작하면서 일각에서 생소한 방송에 대한 우려와 정체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열린 본사 독자위원회에서도 광주일보 채널A방송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주일보의 방송 독자성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으로 달려온 2개월여의 결과물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광주일보 신문-방송통합은 지역언론사(言論史)적인 숙명입니다. 그것은 본지의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광주일보는 신군부에 의해 빼앗겨 버린 전일방송 부활이라는 숙명을 풀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지의 신문방송 통합 시대 개막은 역사의 복원이자 창사 60주년을 맞은 광주일보가 또 다른 60년을 만들어가야 할 성장동력입니다.

신문-방송 통합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이르지만 하나, 돌 지리 잡아가는 것을 볼 때 광주일보가 호남의 멀티미디어 센터로 탈바꿈할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모든 눈과 귀를 열어 독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과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고견과 격려 기다리겠습니다. <방송도부당 겸 여론채무장>

광주일보 전국방송시대 두달

빛났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성적비판 자살로 끝낼 뻔한 사건을 타임레이를 통해 학교 폭력이 자살의 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CC-TV 화면을 확보하고 학교 친구들의 증언을 이끌어냄으로써 사건의 진상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광주일보 채널A 뉴스에 사건·사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말 연속 보도된 '문화수도 광주 공사장 기립막도 예술화' '축복원 130만 관광객 돌파' 또 연초 보도된 '진도의 독특한 장례 풍습 꽃상여' 그리고 '순천만 흑두루미 개체수 증가'는 광주·전남이 예향으로, 관광의 1번

네팔에서 온 편지 8



박 행 순

내가 네팔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주인 없는 길거리 개들이다. 매년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광견병이나 개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생긴 질병으로 죽는다고 한다. 외국 선교사들과 병원 관계자들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나도 세 차례에 걸쳐서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았다.

힌두교도가 절대 다수인 네팔에서는 소를 신성시하고 소고기를 안 먹듯이 개도 같은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대우하는 것 같다. 일 년에 하루는 개 축제로 지내는 것을 보

카트만두 동물센터의 마스코트 '망고'

면 네팔의 개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현실은 때로 이상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개들은 사람들이 남긴 음식 부스러기를 먹기 때문에 인구수에 비해한다고 한다. 네팔의 전체 인구가 3천만이 채 안 되는 2005년도에 카트만두 시내에만 3만1000마리가 넘는 개들이 살았고 이중 절대 다수가 질병,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비참하게 살았다고 한다.

얼마 전 KAT(Kathmandu Animal Treatment, www.KATCentre.org.np)센터에서 자원 봉사하는 그래픽이라는 미국 청년을 알게 되었다. KAT 동물센터는 켄 솔터(Jan Salter)라는 여성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길거리 병든 개들을 데려다 치료하고 입양을 주선하거나 불임수술을 통하여 카트만두의 길거리 개 문제를 줄이고자 하는 NGO 단체로서 현재는 네팔의 수도에만 존재한다. KAT에서는 일반대중을 상대로 광

견병 백신 접종과 동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센터로 초청하여 교육도 한다.

2004년 3월 어느 날, 켄은 카트만두 길거리에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흉측한 모습의 개를 목격하였다. 그 개는 못 먹어서 바짝 마른 몸에 삼한 피부병을 앓고 있어서 털이 다 빠진, 거의 알몸상태였다. 사람은 모두 얼굴을 돌렸지만 켄은 그 개를 안아 집으로 데려가서 먹은 것을 준 다음 봉사자들과 이 처참한 몸골의 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하였다. 안락사도 심각하게 거론하였지만 일단 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쪽으로 결론지었다. 그들의 치료와 정성스런 보살핌으로 얼마 후에 그 개가 회복되어 망고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망고가 본래의 건강한 모습을 찾았을 때, 사람들은 그가 바로 훌륭한 티벳산 테리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망고는 KAT 센터의 마스코트가 되었

고 모든 견공들은 그를 '보스'로 받는다.

그랬을 최근 카트만두의 길거리 개들이 이만 마리 정도로 줄었다고 5~6년 만에 달성한 센터의 실적을 자랑하였다. KAT의 연회비가 10\$, 개 한 마리를 후원하는 돈이 월 15\$라고 한다. 주인 없는 개들이 길거리에서 병들어 죽거나 수많은 새끼를 낳아 번식하게 하는 것보다 개들을 치료해주고 불임수술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인도적이라는 KAT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나는 기쁘게 20\$를 후원하였다. 그랬을 이 돈이면 개 한 마리의 불임수술비라고, 미국에서는 200\$이 드는데 이곳에서는 십분의 일밖에 안 든다고 했다. 네팔에서의 개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다면, 그리고 당산들의 수고에 비하면 정말로 작은 성의 일 뿐이라고 그를 격려했다.

카트만두의 개들이 우리의 생각에 동조하며 고마워할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지만 우리는 의기투합하여 서로에게 고마워하면서 네팔의 길거리 개 문제가 줄어들기를 희망했다.

<전남대학교 명예교수·파티의대 객원교수>

기고



김 선 준

최근 고속철도 민간개방 관련 찬반 논란이 뜨겁다. 대표적인 민영화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는 영국철도는 대체 총리 시절인 1996년에 민영화되었다가 6년 만인 2002년 다시 공영화하였다.

민간 철도 기업은 과도한 이윤을 챙기면서도 만능적자에 시달렸다. 민영화 초기 최소이윤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하였던 영국 철도는 민영화 이후 정부 보조금이 두 배로 증가했으며, 서비스는 훨씬 더 떨어졌는데 요

영국 철도 민영화 실패를 교훈 삼자

금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웃돌았다. 더 큰 문제는 민영화 이후 안전사고가 부쩍 늘어났으며, 결국 2001년 2억 파운드(1조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파산하게 되었다. 영국 정부는 결국 철도를 다시 공영화할 수밖에 없었다.

국도 해양부는 지난해 말 신년도 업무보고에서 철도산업의 서비스 개선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철도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철도운영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건설 운영되는 수서·평택 수도권 고속철도와 부산과 목포로 가는 경부·호남고속철도의 운영에 민간을 참여시키겠다는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상반기 중에 철도민간사업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경쟁체제 도입시 고속철도 운임이 20% 낮아질 것이라는 한국교통연구원원의 분석 등을 인용하면서 민간자본 유치 명분을 들었다. 하지만 한국교통연구원은 과거 공영철도 수요 예측 및 부산-김해 간 경전철 수요 예측 등에서 잘못된 전망을 내놓은 바 있으며, 이는 결국 고스란히 정부 부담으로 돌아왔다.

운임 20%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분석하면서 이 사례와 같이 수요(수입)와 비용이 잘못 추정되지 않았는지 제대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철도공사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민간기업이 KTX를 운영한다면 기존 철도 인프라를 이용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가늠해 볼 수 있으나, 고속철도의 수익으로 일반 및 물류철도 적자 일부를 메우고 있는 현 철도공사의 영업 구조상 일반 및 물류철도 적자 폭이 심화되어 철도공사 경영 전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고속철도 민간개방은 한미FTA 발효시점 이후 철도에 대한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국부 유출을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일반철도 적자선 운영, 교통 약자에 대한 요금 지원, 공공요금 정책 등에 커다란 위협을 줄 수도 있다.

현 시점에서는 철도 본 고장인 영국에서 민영화로 인한 많은 문제점 발생으로 결국 이를 포기하고 다시금 공영화로 돌아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나라에서의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순천제일대 철도운수경영과 교수>

보험금 안주려 특하면 소송거는 보험사 아비하다

며칠 전 소비자단체에서 발표한 내용을 접하고는 충격과 함께 너무나 큰 분노를 느꼈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의 아비한 행위 때문이다.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는 예기치 못한 급작스런 사고가 터졌을 때 금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보험은 사고가 나지 않으면 그동안 부었던 돈을 거의 다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보험을 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믿고 가입한 보험회사가,

정작 사고가 나서 큰 돈이 들어가야 하는 보험사 고객에게 "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건다면 그 당사자는 어떤 생각이 들까. 그리고 보험회사가 고객인 사고 피해자에게 가급적이면 돈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돈을 줄 수 있는 방안과 규정을 찾되보다, 어떻게든 돈을 주기 않으려는 조항과 규정을 찾기에 바쁘고 거기에 관련된 작은 조항이라도 걸어 돈을 못 주겠다고 나선다면 그게 과연 보험회사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을까.

적어도 피해자가 사기 치는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하다면 말이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가 발표한 내용중 OO회사는 최근 5년간 무려 646건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부존재 소송이란 보험회사가 가입 고객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소송을 말한다. 그리고 더욱 기막힌 건 OO회사의 승소율은 61%였다. 이 정도 승소율이 보험업계에에선 최상위권이라고 한다.

5년간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 건수는 무려 3600여 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험회사들이 소송을 걸어대는 이유는 패소할 때 패소하더라도 일

단 소송을 걸면 가입자가 지쳐서 떨어져 나가거나, 혹은 보험금 지급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험회사들은 과다한 보험 청구나 보험사기 때문에 소송을 건다고 변명하지만 그런 핑계일 뿐이다.

즉 금융감독원에서는 채무부존재 소송 건 중 단 1건의 보험사기도 없었다고 하니 보험회사들의 핑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서 손해율을 줄이고, 낮은 보험금액에 합의를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취야 한다.

▲이미경·광주시 북구 대령동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설 민심이 전하는 지역 총선 '물갈이론'

지난 주 광주일보가 4월 총선과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는 지역 정치권의 대변혁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무엇보다 광주·전남지역 유권자 절반 이상(51.2%)이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인물을 지지하겠다는 변화 바람이다. 현역 국회의원 지지 의사는 38.6%에 그쳤다.

지역구 20곳 가운데 절반인 10곳에서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들이 오차범위 안팎의 접점을 벌이고 있다는 게 이에 대한 반증이다. 실제로, 광주에서는 현역 의원을 앞서는 곳과 접전지역이 8곳 중 5곳에 달했다. 전남도 역시 무주공산 지역을 포함한 4곳에 신진인사들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번 설 명절에서도 지역 민심은 본보의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지역민들은 현역 의원의 무능과 무기력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적어도 10명 중 5명 이상은 '물갈이론'을 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이 탐탁치 않았다는 것이다. 특정 계파에 치우쳐 안주에 급급하고, 기득권에 연연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지금 서민경제는 최악의 상황이다. 일자리는 없고 하루가 무섭게 치솟는 물가와 날로 늘어가는 빚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다. 소값과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은 '거리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지역정치권이 서민과 농민의 아픔을 어루만진 예는 찾기 어렵다.

민중당의 과감한 인적 쇄신은 뒷받침이 나 다른 없는 호남에서 시작돼야 실효를 얻을 수 있다. 총선에서의 승리는 민심에 다가가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호남비하' 제재 목살 네이버 방치만 할 건가

'호남비하' 등 지역감정을 조장해온 네이버의 인터넷 카페에 대해 '이용 해지'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네이버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한 달 이상 목살하다 지난 17일야아 '이용 해지'가 아닌 '비공개 전환' 결정을 내리며 방송통신심의위의 조치를 사실상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6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네이버 카페 '라도 코드'에 대해 '이용해지'를 결정했다. 이 용해되는 해당 카페의 접근 자체를 막는 조치다. 카페 운영자를 제외하고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네이버는 이를 무시하고 뒤늦게 '비공개 전환' 결정을 했다. 비공개 전환은 회원들이 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정보를 올리고 읽을 수 있어 사실상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 네이버가 방통위의 조치를 어기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처음이라니 그 배경 또한 의심스럽다. 지난해 개설된 '라도코드'는 노골적

으로 '호남비하' 글을 게재해왔다. 이미 국가기업으로 지정된 광주5·18 정신을 훼손하고 오히려 신군부의 만행을 미화하는 글도 올렸다.

그래서 방통위는 '지역차별이나 편견 조장 금지'라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들어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네이버측은 한 달 넘게 목살하다 '비공개 전환'이라는 어정쩡한 조치를 취했다. 회사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 역시 억지주장이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회사 영업에 도움만 된다면 어떤 글이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말 아닌가.

네이버는 이미 온라인상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공기(公器)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당국도 단순 제재로 끝내선 안 된다. 주요 포털사이트와 토론방이 유익한 정보습득과 건강한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보다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無等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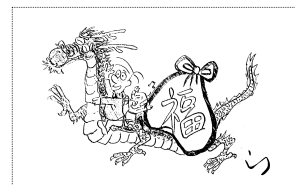
흑룡(黑龍)의 해, 임진(壬辰)년이 열렸다. 10천간(天干) 중 임(壬)과 계(癸)는 검은 색으로서 북쪽을 의미한다니, 임진년은 북쪽을 수호하는 흑룡의 시대인 셈이다.

설에 따르면, 용은 천간에 따라 동쪽을 수호하는 청룡, 서쪽을 지키는 백룡, 남쪽을 지키는 적룡, 북쪽을 지키는 흑룡 그리고 중앙을 지키는 황룡 등 5가지가 있다. 설이 엮였기는 하지만, 이들 5가지 색깔의 용 가운데 청룡을 으뜸으로 친다고 한다. 청룡이 파란색으로 상징되는 동쪽 세상을 지킨다고 믿기 때문이다. 고대 국가에서는 왕을 비롯해 높은 신분을 지닌 사람이 죽으면 관(棺)

유래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전해온다. 가장 흔한 것이 흑룡은 '임금의 뒤에서 반란을 도모하는 역장(逆將)'이라는 설이다. 그 근거로서 과거 임진년이었다면 1592년엔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1952년에는 한국전쟁 중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특별한 근거도 없이 사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초현실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주제들에 대해서는 '개인의 심안(心眼)이 열리지 않거나 믿음이 없어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는 반론이 항상 제기되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흑룡의 해



가 10개 천간(天干)과의 원복에 청룡을 그려넣어 죽은 자를 지켜주는 동시에 좋은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풍습이 있었다. 관을 물은 때 머리 부분을 저승이 있다는 북쪽으로 향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관의 왼쪽이 동쪽이 된다. 좌청룡(左靑龍)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나왔다.

울해의 주인공 흑룡에 대해서는 별로

/홍행기정경부차장:redplan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日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대표이사 申港樂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간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2200-551	
222-4267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집부	2200-649	여론채무부	2200-62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대표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대표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경명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3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